

공업염 운임 “CA 시장판도 바꾼다!”

염 운임 급등으로 가격경쟁력 요구 ... 시장재편 및 사업철수 수반

CA(Chlie-Alkali) 사업에 예기치 않은 수익압박 요인이 발생했다.

원료인 수입 공업염이 Freight(운임) 급등에 따라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여 상황에 따라서는 1년 전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전해기업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CA는 가격상승이나 수요 증가로 수익이 향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을 때 운임급등이 발생해 관계자들이 모두 문제해결에 고심하고 있다.

또 운임 급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원료 코스트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원료염 문제가 부실기업 퇴출을 가속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염 수송에 사용되는 드라이 벌크의 운임이 급상승하고 있는데, 주력인 7만톤급 선형 Panamax급은 2002년 초가을 1일 7000달러였던 운임이 현재는 4만달러로 4-5배 가까이 상승했다. 게다가 상승분의 대부분이 2003년 초가을부터 불과 몇개월 사이에 일어났다.

염 가격은 최근 3년 동안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현재도 FOB 베이스 가격에 그다지 변화가 없으나 최근 몇 개월간의 운임급등으로 CIF 베이스 가격은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이미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으나, 향후 공급자와 전해 메이커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가격인상 수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CIF 가격에서 차지하는 운임의 비율은 대형선박이 50% 이하이나 소형선박은 추가부담이 50%에 달하는 사례도 있어 운임이 4배 증가하면 염 구입가격이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해의 제조비용에서 원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석유화학만큼 크지 않으나 수익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전해 메이커의 사업채산성이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있는데, 성숙단계에 접어든 일본시장이나 하락추세를 보이는 가격, 약 20사나 되는 메이커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CA는 최근 산·알카리 2개 부문에서 수출이 활성화되고 가격인상 움직임이 있어 수익성 향상에 대한 기대를 모아왔으나, 운임급등으로 새로운 마이너스 요인을 떠안게 됐다.

석탄으로 자가발전을 하는 곳에서는 석탄가격 및 운임상승도 모두 골치 아픈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운임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중장기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형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메이커와 소형선박만 사용할 수 있는 메이커의 가격차가 더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렴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CA 생산기업과 그렇지 않은 곳, PVC를 사업화하고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현지 밀착형과 그렇지 않은 곳의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화학저널 2004/04/30>